

2008년 8월 5일 말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나도 일 하러 왔으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피곤하고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옆에 사람이 스트레스까지 주니까 그냥 나가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분 가지고 살고 죽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있으니 나한테 받은 스트레스는 옆의 사람들 통해 푸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에이 모르겠다.’ 하고 잠자 보십시오. 잠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라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병아리 새끼 까지도 그렇습니다. 다 자체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번에 힘들고 지쳐서 나가떨어진 사람들 그냥 쳐다만 보지 말고 가보십시오. 나도 나가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는 나가떨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작사 작곡 잘 하는 독일 회원에게 내가 그때 영감을 주어 작곡을 하게 하였습니다. 작사 작곡 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노래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원이 독일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방송에 1시간씩 나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잘 몰라줍니다. 유명한 애들은 그 나라 가야 알지 한국에서는 잘 모릅니다. 음악의 천재입니다. 내가 가르쳐주고 해서 완전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는 작곡을 잘 못합니다. 가사는 잘 짓는데 곡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올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 배우려면 힘드니까 자기가 하던 데서 해야 그래도 소질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던 것을 통해서 해야지 다시 다른 운동으로 하려고 하면 근육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다가 서서히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의식 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잘 압니다. 이제 온 사람들은 좋아서 뛰어다니기만 하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이 해나가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해나가야 잘 됩니다. 잘 하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산에서 온 목사님 한 분도 몸이 그렇게 튼튼하고 황소 같았는데 목회 한 2년 하더니 벌써 아프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운동 안 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심하게 운동합니다. 그 좁은 곳에서 1700리, 1800리 뛰었습니다. 그러니 지탱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운동하는 것 보다 4배를 더 해야 겨우 이렇게 운행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젊었을 때 체질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계속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뛰고 달리고 하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일 하는 것만큼 보람된 것이 없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랑 같이 목회 하던 사람들 나이 먹어서 벌써 다 들어가고 철수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뛰어보려고 합니다. 나는 앞으로 15년은 더 멋있게 뛸 수 있습니다. 그 수십만 명을 가지고 한 15년 뛰면 몇 백 만 명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다 나를 보고 미쳤다고 웃긴다고 하면서 소문내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물러나서 목회 다 그만두고 이제 머리가 하얗고 잘 듣지도 못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잘 유지 합니다. 몸 건강한 것이 복 중에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옛날 내가 보리밥 먹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쌀밥 먹는데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 내가 더 잘 믿는데, 교회도 더 열심히 다니는데...’ 일주일에 14번씩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보리밥 먹는 것이 그게 복 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체질이 완전히 산성으로 안 바뀌고 알칼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좋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도 과거의 일들이 전부다 뜻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국을 집중해서 했기에 외국사람 보다가 여기 와서 한국사람 보니까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원들도 나를 화면으로 본 사람들은 잘 몰라봅니다. 나이 먹은 사람 중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오래 되어서 잘 압니다.

관리를 계속 해온 사람에게는 목회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관리가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내보내면 받는 쪽에서 야구 볼 받듯이 받아야 합니다. 잘 받아서 거기서 잘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 방법입니다. 목회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목회는 쉬운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자꾸 큰 교회만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못 큼니다. 작은 데서도 해보고 막 그래야 합니다. 나는 한명 갖다놓고 시작 하지 않았습니까? 큰 데서 한 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도 해보고 큰일도 해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지냅니다. 산속에 있을 때 내가 70일 쯤 굶으면서 영하 20도 15도 되는 곳에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었는데 그때가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편하면 절대 안 됩니다. 편하면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편하면 그런 것입니다. 호랑이가 쫓아 다녀야, 사자가 도망 다니며 자꾸 초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좁은 곳에서도 일 못하면 후회가 되는데 여러분은 넓은 데서 못하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넓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좁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어디 가서도 하는 것입니다.